

中文摘要

這世界是信息及知識化的時代。因此為了成為世界強國必須均勻地保留各種信息及知識。因此無論是先進國家還是落後國家都為了知識的寶庫——大學的發展做了許多的嘗試。就亞洲的情況而言，台灣以及，南韓、新加坡、馬來西亞、中國以及日本等，投資大學競爭力，是各國國家發展的一環，政府投資高額預算，透過各種計畫勢力提高本國大學的國際水準。其中高等教育評鑑是檢驗大學的全部事項，改正發現的優缺點，為了推進最終目標——品質的提升，是各國都相當重視的核心教育事業。

在亞洲，實施體系性大學評鑑的國家中韓國是數一數二的，1982年設立韓國大學教育協議會的民間評鑑機關，為了樹立最佳的大學評鑑非常認真的努力嘗試著，其成果並不亞於先進國家的評鑑機關水準，實現會員大學質與量的成長，立下大功。看重這樣的成果的亞洲各國請求傳授技能(Know-how)也可以說是它其中一個價值。

自設立韓國大學教育協議會開始一直到現在，透過會員實施以大學自律和品質的提升為其主要目的大學評鑑。而且所以評鑑的活動都受到法律的保障，是韓國唯一具有公信力的評鑑機關。本機關自1990年代評鑑事業分成大學綜合評鑑和學問領域評鑑，這種分類的兩種評鑑，自1994年以來所設立的其他大學評鑑機關，一直以來以類似的名稱和目的來做評鑑，其忠實地模式的作用可以找到其意義。

本研究將分析並介紹韓國大學教育協議會自1990年代初期所實施的綜合評鑑及學問評鑑，以其中評鑑事業所出現的問題為基礎，著種於提出改善方案。相對於評鑑的沿革，在研究實績和相關書籍並不充份的情況下，希望本論文能成為想要接觸韓國大學評鑑的讀者的一本小小的參考書。

한국어 개요

세계는 정보화, 두뇌화 시대이다. 그러므로 초일류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두루 보유해야만 한다. 이로써 선, 후진국 할 거 없이 모두 지식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아시아만 해도 대만을 비롯하여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가 국가 발전의 일환으로 정부 예산의 상당수를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하고 있으며, 여러 계획을 통해 자국의 대학을 국제적인 수준권으로 끌어올리고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 중 고등교육평가는 대학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도출되는 장·단점을 살려 궁극적인 목표인 질 성장을 위해 나아감으로 매 국가마다 상당히 중요시하는 핵심적인 교육사업으로 꼽힌다.

아시아에서 가장 체계적인 대학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로 한국을 꼽을 수 있으니, 1982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라는 민간평가기관이 설립되면서 보다 나은 대학평가를 수립하기 위해 실로 부단한 노력을 기해왔다. 그 결과, 평가구조가 선진국에 견주어도 결코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 수준을 달성했으며, 회원대학의 질적·양적 성장을 이룩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 이러한 성과를 높이 산 아시아 각국에서 노하우를 전수해 달라는 요청 역시 또 하나의 값진 성과로써 언급할 수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회원으로 가입한 대학의 자율과 질의 성장을 주 목적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또한 평가의 모든 활동을 법으로 보장받고 있는 한국 유일의 공신력있는 평가기관이기도 하다. 또한 본 기관은 1990년대부터 대학종합평가와 학문분야평가로 나뉘어 평가사업을 벌여왔는데,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뉜 평가는 1994년 이후로 발족된 여타의 대학평가기관이 현재까지 비슷한 명칭 또는 목적으로서 평가를 하고 있을 정도로 모델의 역할을 충실히 해 왔음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990년대 초반부터 실시해 온 종합평가와 학문평가를 분석, 소개하고, 그간 평가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평가의 연혁에 비해 연구실적 또는 관련서적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본 논문이 한국의 대학평가를 접하고 싶어하는 연구자 분들에게 자그마한 참고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